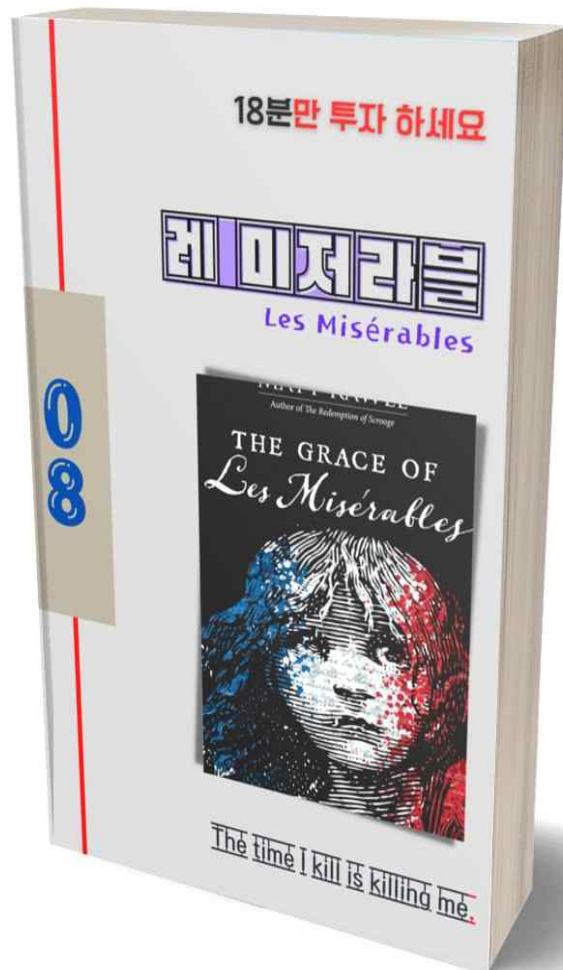


# 18 minutes is Enough



## 레 미제라블 간단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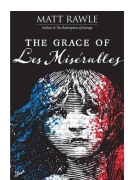
레 미제라블(Les Misérables →비참한 사람들)은 1862년에 프랑스의 빅토르 위고가 쓴 소설입니다.

굶주리는 일곱 조카들을 위해 빵 한 조각을 훔친 죄로 5년형을 선고받고, 수차례 탈옥을 시도한 끝에 형이 19년으로 연장된 감옥살이를 하고 가석방된 장발장.

그는 훔친 은식기에 은촛대까지 선물로 준 미리엘 주교에게 감명받아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심합니다. 정체를 숨기고 마들렌이라는 새 이름으로 시장이 되어 가난한 이들을 도우는 중 팡틴을 만나 연민을 가집니다. 결핵으로 죽음을 눈앞에 둔 팡틴은 자신의 딸 코제트를 장발장에게 부탁합니다. 그 이후 테나르디에 부부에게 혹사당하던 코제트를 구하고 입양하여 자신이 키우기 시작합니다.

자베르 경감의 눈을 피해 수도원에서 포술레방 노인에게 도움을 받아 살아가며 코제트를 키우다가, 다시 경감의 집요한 추적을 피하기위해 파리로 이사합니다. 이후 마리우스라는 청년과 코제트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프랑스 6월봉기에서 마리우스가 죽을 뻔한 것을 장발장이 하수구를 통해 구해줍니다. 자베르 경감은 장발장의 진면모를 알고서 그를 놓아주고 강물에 몸을 던져 자살합니다. 마리우스와 코제트는 드디어 결혼 합니다.

장발장은 몇 년후 이들에게 자신의 과거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장발장은 삶의 마지막 순간에 코제트와의 재회를 크게 기뻐하며 만족스럽게 삶을 마감합니다.



## 미리보는 레 미제라블 배경지식



1. 실제 이 작품이 배경으로 삼은 사건은 프랑스 대혁명이 아니라 실패한 **1832년 6월 봉기**다. 실패한 봉기라서 그런지 미국이나 한국 같은 외국은 그렇다 치더라도 본국인 프랑스에서도 제대로 아는 사람이 2%밖에 되지 않는다는 1991년 기사가 있다.
2. 프랑스어 원문으로 5권에, 65만 5,478개의 단어로 쓰여진 역사상 가장 긴 소설 중 하나이다.
3. 한국어 번역본 기준으로는 민음사판 레 미제라블은 5권 분량의 쪽 수는 2,556쪽으로 매우 길다.
4. 장발장에게 친절을 베푸는 주교 정도로만 묘사되는 '미리엘 주교'의 신상과 행실, 사상을, 원작에서는 1장 전체를 활용해 100페이지가 넘도록 기술하고 있다.
5. 당시 위고는 출판업자에게 12년 독점 출판권을 주는 대신에 당시로선 엄청난 금액이었던 30만 프랑 인세를 한꺼번에 지불받았다고 한다. 30만 프랑은 지금 화폐가치로도 4억 2천만 원이 넘는 엄청난 금액이다.
6. 어휘도 엄청나게 풍부해 63만 단어 중에는 약 2만 개의 다른 단어들이 있다고 한다. 셰익스피어 작품의 전체 단어들만큼이나 많은 단어가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7. 원작은 눈 뒤집힐 정도로 두껍다. 이는 당시 프랑스의 출판사들이 단어 수를 기준으로 원고료를 지불했기 때문이다. 즉, 작가 입장에서는 작품을 길게 쓸수록 원고료를 많이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설도 있다.
8. 프랑스 국내에서는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히는 책이라고 불릴 만큼의 지위를 지닌 소설이다. 다만 역시 두께가 두께인지라 프랑스인들조차 원전까지 다 섭렵한 사람은 드물며, 타국과 마찬가지로 편집본의 형태로 접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9. 아동용은 대부분 <장발장(Jean Valjean)>으로 통칭한다.

대개 1935년 캐나다의 목사 솔로몬 클리버가 어린이들이 읽기 쉽게 내용을 10분의 1로 축약한 버전 '장 발 장'(실제 제목이 **장 발 장**(Jean Valjean)이 아닌 장 발 장 (Jean Val Jean)이다!) 에 기초를 두고 있다.

일단 이야기의 주요는 장발장의 일생이기 때문에 교과서나 동화책에는 보통 장발장의 이야기(빵 절도 사건~주교의 도움으로 개심)만 편집되어 실리고, 책 제목도 그냥 장발장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이 책의 이름을 '레 미제라블'이 아닌 '장 발장'으로 알고 있는 사람도 적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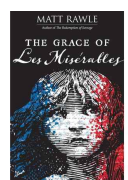
정반대로, **유럽쪽 동화책의 경우에는 장발장이 아닌 코제트와 가브로슈가 주인공이 되는 경우가 더 많다.**

10. 한글로 2,000쪽이 넘는 소설을 읽는다는 것은 빅토르 위고의 현학적인 강의를 듣는 것과 다르지 않다.

1권을 펼쳐 들면 주인공 장발장은 나오지 않고 미리엘 주교 이야기가 90쪽이 넘도록 설명된다. 간신히 이 고개를 넘으면 100쪽에 걸쳐 워털루전투가 묘사되고, 결말을 기대할 때쯤이면 파리의 하수도 묘사가 80쪽이나 나와 독서 의지를 시험한다. 이런 점 때문에 산만하다는 불평도 있다.

## 11. 간단한 등장인물 소개

- ① 장발장 - 주인공
- ② 미리엘 주교(신부) - 장발장을 용서하고, 인생 전환점을 준 주교(신부)  
(원래 프랑스어 버전에서 그의 이름은 Monseigneur Charles-François-Bienvenu Myriel이지만 일부 영어 번역에서는 **미리엘** (Bishop Myriel)로 언급되고 다른 번역에서는 **디그네**(Bishop Digne)로 불리기도 합니다.)
- ③ 자베르 - 장발장을 쫓는 경감. 악역 인물이다.
- ④ 팡틴 - 고아. 코제트 엄마. 미혼모. 고생 끝에 결핵으로 사망한다.
- ⑤ 코제트 - 팡틴의 딸
- ⑥ 마리우스 - ABC 붕기 그룹 일원, 코제트와 사랑에 빠져 결혼한다.
- ⑦ 테나르디에 부부 -코제트를 빌미로 팡틴에게 돈을 뜯어내는 악덕 부부
- ⑧ 에포닌 - 테나르디에 부부 큰딸. 마리우스를 짝사랑한다.
- ⑨ 가브로슈 - 테나르디에 부부 아들. 정의로운 마음을 가졌지만 엉뚱한 소년이다.



## 레 미제라블 등장인물 관계도



## 레 미제라블 요약



빵 한덩어리를 훔친 죄와 이 후 탈옥을 시도한 죄로 19년간 복역한 후 프랑스 교도소에서 가석방된 죄수 장발장. 장발장이 디뉴 마을에 도착했을 때 전과자라는 이유로 아무도 장발장에게 쉼터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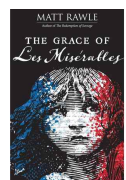
절망에 빠진 장발장은 디뉴의 친절한 주교 미리엘의 문을 두드립니다. 미리엘은 장발장을 친절하게 해주지만, 장발장은 주교의 은식기를 훔치고 맙니다. 경찰이 장발장을 체포하자 미리엘은 은식기가 선물이었다고 주장하며 그를 감싸줍니다.

당국은 장발장을 석방하고 미리엘은 그에게 정직한 사람이 되겠다고 약속받습니다. 약속을 지키기 위해 장발장은 신분을 감추고 몽트뢰유 쉬르메르 마을로 들어갑니다. 장발장은 마들렌이라는 가명으로 살면서, 독창적인 제조 공정을 발명해 공장을 운영하여 마을에 번영을 가져다줍니다. 그는 이로 인해 마을의 시장이 됩니다.

몽트뢰유 출신의 젊은 여성 팡틴은 파리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부유한 학생인 톨로미에와 사랑에 빠지지만, 그는 그녀를 임신시킨 후 그녀를 버립니다. 팡틴은 어린딸 코제트와 함께 고향 몽트뢰유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팡틴은 코제트가 사생아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게 되면 일자리를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몽페르밀 마을에서 팡틴은 여관을 운영하는 테나르디에 가족을 알게 됩니다. 테나르디에 부부는 팡틴이 매달 용돈을 보내주는 조건으로 코제트를 돌봐주기로 동의합니다.

몽트뢰유에서 팡틴은 마들렌의 공장에서 신분을 숨기며 일하게 됩니다. 하지만 동료들이 코제트에 대해 알게 되고 팡틴은 해고당합니다. 테나르디에 부부는 코제트를 부양하기 위해 더 많은 돈을 요구하자, 팡틴은 돈을 벌기 위해 매춘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결국 다른 매춘부와 거리에서 난투극을 벌이다 경찰에 붙잡히게 됩니다. 그녀는 감옥에 보내질 예정이지만 팡틴에 대해 연민을 가지고 있는 마들렌이 개입합니다.

그러나 팡틴은 병에 걸렸고, 코제트를 보고 싶어하자 마들렌은 그녀를 데려다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하지만 먼저 마들렌의 범죄 전과를 알게 된 자베르와 싸워야 합니다. 자베르가 마들렌에게 장발장이라는 누명을 쓴 남자가 잡혀왔다고 말하자, 억울하게 그 사람이 자기로 인해 구속될것이 걱정되어 마들렌은 자베르에게 자신의 정체를 결국 자백하고 맙니다. 장발장이 팡틴의 병상에 있을 때 경감 자베르가 나타나 장발장을 체포하고, 팡틴은 끝내 결핵으로 사망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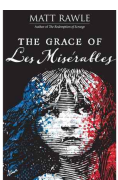
몇 년 후, 장발장은 감옥에서 탈옥하여 몽페르밀로 향하고, 그곳에서 테나르디에 부부로 부터 코제트를 사게 됩니다. 테나르디에 부부는 코제트를 학대하고 두 딸 에포닌과 아젤마를 버릇없이 키우는 악당 가족으로 밝혀집니다. 장발장과 코제트는 파리의 낡은 지역으로 이사합니다. 그러나 자베르가 그들의 은신처를 발견하자 그들은 도망쳐야만 합니다. 그들은 피케뉴 수녀원에 은신처를 마련하고, 코제트는 학교에 다니고 장발장은 수녀원 정원사로 일합니다.

마리우스는 부유한 할아버지 길레노르망과 함께 사는 청년입니다. 가족 내 정치적 차이로 인해 마리우스는 아버지 조르주 퐁머시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마리우스는 아버지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고 아버지의 민주적 정치를 존경하게 됩니다. 그러나 혁명가로서의 이념과 코제트와의 결혼문제로 갈등을 느꼈기 때문에 그는 길레노르망의 집에서 나와 가난한 젊은 법대생으로 살아갑니다. 법대 재학 중 마리우스는 카리스마 넘치는 엔졸라가 이끄는 급진적인 학생 그룹인 ABC의 친구들과 어울리게 됩니다.

어느 날 마리우스는 공원에서 코제트를 보게 됩니다. 첫눈에 반하지만 보호본능이 강한 장발장은 코제트와 마리우스의 만남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하지만 장발장이 마리우스의 가난한 이웃인 존드레트 가족을 자선 방문하면서 두 사람의 길은 다시 한 번 교차합니다. 사실 존드레트 부부는 여관을 잃고 가명으로 파리로 이주한 테나르디에 가족입니다. 장발장이 떠난 후, 테나르디에는 장발장이 돌아오면 여관을 털 계획을 발표합니다. 이에 놀란 마리우스는 경감 자베르에게 알렸습니다. 그의 검거 매복으로 테나르디에는 체포되지만 장발장은 자베르가 그를 알아채기 전에 도망칩니다.

마리우스와 사랑에 빠진 테나르디에의 딸 에포닌은 마리우스가 코제트의 행방을 찾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마리우스는 마침내 코제트와 연락을 취하고,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사랑을 선언합니다. 하지만 코제트를 잃을까 봐 걱정하고 도시의 정치적 소용돌이에 불안해하던 장발장은 코제트와 함께 영국으로 이주한다고 발표해 버립니다. 절망에 빠진 마리우스는 할아버지 길레노르망에게 달려가 코제트와 결혼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부탁드립니다. 그들의 만남은 격렬한 논쟁으로 끝납니다. 마리우스가 코제트에게 찾으러 갔을 때 그녀와 장발장은 사라진 뒤였습니다.

상심에 빠진 마리우스는 정치적 봉기를 시작한 급진적인 ABC 그룹 친구들과 함께하기로 결심합니다. 장발장도 빈민층과 노동자 계급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알게 된 후 이들의 대의에 무슈 마들렌이라는 이름으로 동참하게 됩니다.



권총 두 자루로 무장한 마리우스는 바리케이드로 향합니다. 봉기는 실패로 끝날 것 같지만 마리우스와 그의 동료 학생들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싸울 것을 다짐하며 굳건히 나아갑니다. 군대가 학생들을 향한 첫 공격을 시작하자 에포닌은 마리우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소총 앞에 몸을 던집니다. 에포닌은 마리우스의 품에 안겨 죽으면서 코제트에게 "자유를 위해서" 라는 말을 남기며 마지막 숨을 거둡니다.

마리우스는 바리케이드 전투 전날 밤 코제트에게 사랑고백 편지를 썼습니다. 가브로슈에게 코제트에게 편지를 전해달라고 부탁했지만, 도중에 자베르에게 편지를 빼앗기고 그로 인해 코제트와 장발장이 체포 되었지만, 그에게 신세를 진 범죄자 테나르디에의 도움으로 장발장은 감옥에서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자베르는 혁명가들을 염탐하다 잡혀 시위대에게서 사형을 선고 받지만, 바리케이드에 도착한 장발장이 자베르의 처형에 자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장발장은 자베르와 단둘이 있을 때 그를 몰래 풀어줍니다. 군대가 바리케이드를 습격하자 장발장은 부상당한 마리우스를 붙잡고 하수구를 통해 도망칩니다. 몇 시간 후 장발장이 나타나자 자베르가 다시 즉시 그를 체포합니다. 장발장은 자베르에게 죽어가는 마리우스를 마리우스의 할아버지에게 데려가게 해달라고 간청하여 풀려나게 해줍니다. 자베르는 점차 자신의 직업에 대한 의무와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장발장에게 진 빚 사이에서 갈등하며 괴로워합니다. 결국 자베르가 장발장을 놓아주고 강물에 몸을 던져 자살합니다. 마리우스는 완전히 회복되고 할아버지 길레노르망과 화해하고 코제트와 결혼에 동의합니다.

그들의 결혼식은 행복한 결혼식였습니다. 몇 년 후 어느 날 밤, 테나르디에가 장발장의 범죄 전과를 코제트에게 폭로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장발장은 고민 끝에 마리우스에게 진실을 말해야 되겠다고 결심합니다. 장발장은 마리우스와 코제트의 집으로 가서, 디그네 주교에게서 은식기를 훔친 일과 19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던 일 등 자신의 과거에 대한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마리우스는 충격을 받았지만 그는 장발장을 용서했습니다.

장발장은 죽음에 이르러, 마리우스, 코제트, 디그네 주교와 함께 했습니다. 코제트를 보면서 코제트 어머니 팡틴과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C'est bon de mourir comme cela"**(**"이렇게 죽는 것이 얼마나 달콤한가"**)라고 말하며 죽음을 맞이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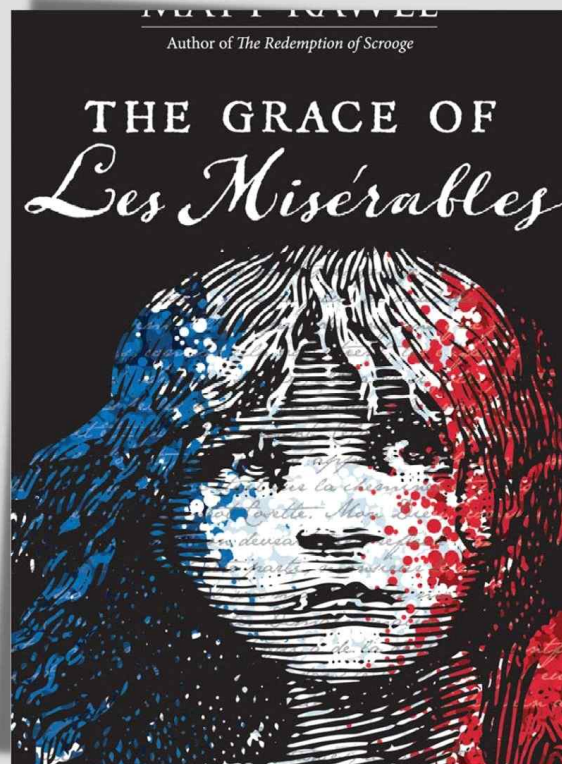


18분만 투자 하세요

# 레 미제라블

Les Misérables

08



The time I kill is killing me.

## 레 미제라블 각 권에 대한 간략한 요약

### 1권: "팡틴"

이번 권에서는 딸 코제트를 부양하기 위해 매춘을 강요당하는 미혼모 팡틴의 캐릭터를 소개한다. 우리는 또한 감옥에서 출소한 후 직장 and 사회에서 자리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전과자 장발장을 만납니다. 장발장은 그에게 자비를 베풀고 그의 방식을 바꾸도록 영감을 주는 친절한 주교에게서 물건을 훔칩니다.

### 2권: "코제트"

장발장은 주교의 집을 떠난 후 잔인한 테나르디에에게서 코제트를 구출한다. 장발장은 코제트를 자신의 딸로 키우고 파리에서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한편 경찰 조사관 자베르는 장발장을 붙잡아 감옥에 보내기로 결심한다.

### 3권: "마리우스"

어린 학생 마리우스는 코제트와 사랑에 빠지지만 장발장은 두 사람을 함께 하는 것을 주저한다. 마리우스는 프랑스에서 사회 정의를 위해 싸우는 혁명가 그룹에 참여하게 됩니다. 한편 자베르는 자신의 신념과 가치관에 의문을 품기 시작하면서도 계속해서 장발장을 쫓는다.

### 4권: "생 드니"

**(“생 드니” - 엔졸라가 혁명가들을 이끌고 정부를 전복시키려 했던 반란을 비롯해 소설 속 중요한 사건의 배경이 되는 곳입니다. 이 제목은 많은 프랑스 군주들의 무덤이 있는 생드니 대성당이 있는 생드니의 역사적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혁명가들은 정부에 맞서고 마리우스는 그들과 함께 투쟁합니다. 장발장은 또한 분쟁에 연루되어 마리우스와 코제트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려고 노력합니다. 전투는 더욱 격렬해지고 혼돈 속에서 많은 캐릭터가 부상을 입거나 사망합니다.

### 5권: "장발장"

마지막 권에서 혁명가들은 패배하고 장발장은 자베르와 화해 할 수 있습니다. 마리우스와 코제트는 결혼했고 장발장은 평화롭게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리우스에게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고백합니다. 소설은 큰 역경 속에서도 사랑의 힘과 구원의 가능성에 대한 성찰로 끝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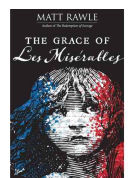


## 레 미제라블 **원작과 영화 차이점**



원작 소설	1998년 영화 각색
팡틴은 톨로메스라는 남자와 코제트라는 딸을 두고 있는데, 톨로메스는 그녀를 버립니다.	팡틴에게는 코제트라는 딸이 있는데, 코제트는 팡틴에게 잔인하고 무자비한 인물로 묘사되는 펠릭스 톨로메스라는 남자와 결혼합니다.
이야기는 1815년부터 1832년까지 수십 년에 걸쳐 진행됩니다.	이야기는 1815년부터 1823년까지 짧은 기간에 걸쳐 진행됩니다.
소설에서는 장발장과 코제트 두 사람의 관계가 더 복잡하고 로맨틱합니다.	영화에서는 아버지와 딸의 관계만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마리우스는 룩셈부르크 정원에서 코제트를 본 후 사랑에 빠집니다.	마리우스는 길거리에서 코제트를 보고 사랑에 빠지고, 두 사람은 다음 만남을 갖기 전에 잠시만 교류합니다.
장발장은 처음에는 의무감으로 코제트를 테나르디에로부터 데려가지만 점차 그녀를 깊이 사랑하게 되면서 코제트와의 관계가 복잡해집니다.	장발장과 코제트의 관계는 코제트가 마리우스를 즉시 돌보고 그녀의 대리 아버지가 되는 등 보다 직설적으로 묘사됩니다.
테나르디에는 팡틴을 착취하고 코제트를 함부로 대하는 극도로 악랄하고 잔인한 인물로 묘사됩니다.	테나르디에는 더 코믹하고 엉뚱한 인물로 묘사됩니다.
가브로슈의 캐릭터는 혁명의 영웅이 되는 길거리 성계입니다.	가브로슈는 여전히 거리에서 떠돌이 생활을 하지만 혁명에서 그의 역할은 덜 두드러집니다.
자베르 캐릭터는 장발장을 잡기 위해 결심하는 무자비하고 타협하지 않는 권력자로 묘사됩니다.	자베르가 더 동정적인 인물로 묘사되며, 그의 의무와 도덕적 나침반 사이의 내적 갈등이 강조됩니다.
에포닌은 바리케이드에서 마리우스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그를 향한 짝사랑을 주요 테마로 삼습니다.	마리우스를 위한 에포닌의 희생은 여전히 묘사되지만, 그에 대한 그녀의 짝사랑은 덜 두드러집니다.
이야기는 시간을 앞뒤로 넘나들지 않고 보다 선형적인 방식으로 전달됩니다.	회상과 꿈의 시퀀스를 통해 등장인물의 배경과 내면을 묘사하는 데 사용되면서 이야기는 더 자주 시간을 앞뒤로 넘나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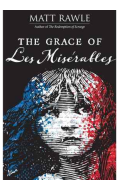
원작 소설	2012년 영화 각색
이야기는 수십 년 동안 여러 캐릭터의 삶을 다루는 다섯 권으로 나뉩니다.	영화는 장발장, 팡틴, 코제트, 마리우스, 자베르의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팡틴의 부모님과의 관계 및 공장에서 일한 시간을 포함하여 더 자세한 배경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팡틴의 배경 이야기는 단순화되었으며 그녀의 부모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장발장은 근육질 체격과 거친 외모를 가진 것으로 묘사됩니다.	영화에서 장발장 역을 맡은 휴 잭맨은 한층 더 말끔해진 모습입니다.
자베르는 파란색 유니폼과 강하고 권위있는 존재로 묘사됩니다.	영화에서 러셀 크로우가 연기한 자베르는 좀 더 차분한 제복을 입고 갈등하고 내성적인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마리우스와 코제트의 러브 스토리는 소설의 중요한 부분이며, 많은 장면이 그들의 구애에 바쳐집니다.	코제트의 러브 스토리는 영화에 압축되어 있으며 애정관계에 대한 장면이 적습니다.
소설에는 1832년 6월 봉기와 같은 정치적 논평과 역사적 맥락이 더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화는 정치적 맥락보다는 인물들의 개인적인 이야기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베르와 장발장의 마지막 대결은 센강 유역에서 열립니다.	자베르와 장발장의 마지막 대결은 파리 하수구에서 열립니다.
3인칭 전지적 내레이션으로 작성되어 독자가 여러 캐릭터의 생각과 감정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영화는 주로 장발장, 코제트, 자베르의 관점을 통해 전달됩니다.
팡틴의 뒷이야기와 매춘에 빠지게 된 배경을 심도 있게 탐구합니다.	팡틴의 배경 스토리가 축약되고 매춘에 빠지게 되는 과정이 더욱 사실적으로 묘사됩니다.



## 장발장의 시점으로 레 미제라블을 시간순으로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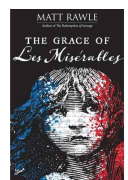
절망적이고 비통한 전과자에서 친절하고 사랑스러운 아버지로 변모하는 등 장발장의 인생에서 일어난 주요 사건들을 그를 중심으로 요약한 내용입니다.

1. 장발장은 빵 한 덩어리를 훔친 죄로 19년을 복역한 후 출소합니다. 그는 위험한 범죄자로 낙인찍혀 일할 곳이나 살 곳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합니다.
2. 그는 주교의 집으로 피신하지만 밤에 주교의 은식기를 훔칩니다. 경찰에 붙잡히자 주교는 은식기를 장발장에게 선물로 줬다고 거짓말을 하고 그를 감옥으로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이 용서와 친절의 행동은 장발장의 삶을 변화시키고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영감을 줍니다.
3. 장발장은 가석방을 받고 무슈 마들렌이라는 새로운 신분을 갖게 됩니다. 그는 성공적으로 장신구 공장을 운영하며 마을 사람들의 존경과 찬사를 받게 됩니다.
4. 수년 후, 장발장은 딸 코제트를 부양하기 위해 매춘을 강요당한 여성 팡틴을 만납니다. 그는 팡틴이 죽은 후 코제트를 돌봐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는 이 약속을 지키고 코제트를 사랑하고 보호하는 아버지가 됩니다.
5. 장발장과 코제트는 가석방 위반으로 장발장을 체포하려는 자베르 경감의 감시를 피해 파리로 도망칩니다. 파리에서 장발장은 정부를 전복하려다 실패한 6월 봉기에 연루됩니다.  
봉기가 진행되는 동안 장발장은 바리케이드에서 부상당한 젊은 혁명가 마리우스를 구출해 안전한 곳으로 데려다 줍니다. 마리우스와 사랑에 빠진 코제트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6. 코제트 결혼 몇 년후, 장발장은 마리우스에게 자신이 숨겨온 정체를 밝히고 코제트에게 자신의 과거를 고백합니다. 장발장은 마침내 구원을 찾았다는 사실을 알고 조용히 세상을 떠납니다.



## 주요 등장인물과 그들의 특징

1. **장발장**: 죄수였던 그는 주교의 자비를 받은 후 "마들렌"으로 이름을 바꾸어 살면서, 타인을 위해 자신의 행복을 기꺼이 희생하는 이타적이고 자비로운 사람입니다.
2. **자베르**: 이야기의 주요 적대자이자 법을 집행하고 장발장을 잡는 데 집착하는 경찰 경감. 자베르 경감은 절대적인 정의를 신봉하며 법에서 벗어나는 것을 이해하거나 용서하지 못하는 엄격하고 타협하지 않는 인물입니다.
3. **팡틴**: 생활고에 시달리다 딸을 부양하기 위해 매춘부가 될 수밖에 없는 젊은 여성. 팡틴은 큰 고통을 겪지만 아이를 부양하기 위해 결심하는 비극적인 인물입니다.
4. **코제트**: 팡틴의 딸로 장발장에게 입양되어 그의 딸로 자랍니다. 마리우스의 연인이며 결혼까지 합니다.
5. **마리우스**: 코제트와 사랑에 빠지는 부자집 출신 학생. 마리우스는 이상주의적이고 열정적이지만 혁명보다는 사랑을 택합니다. 장발장에 대한 의심과 반목이 많았지만,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사실을 알고 화해합니다.
6. **에포닌**: 마리우스와 짝사랑에 빠진, 악덕 테나르디에 부부의 딸. 에포닌은 거리낌이 없고 강인하지만 부드러운 면이 있으며 마리우스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내놓습니다.
7. **테나르디에**: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는 교활한 여관 주인.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부정직하고 교활한 캐릭터입니다.
9. **미리엘 주교**: 자비롭고 용서하는 인물이에요. 그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돕는 데 헌신하며 이타심과 겸손으로 모범을 보입니다.
10. **가브로슈**: 용감하고 거리의 영리한 캐릭터예요. 그는 파리 거리에서 삶의 위험을 헤쳐나갈 수 있는 수완이 풍부하고 독립적인 아이입니다.
11. **엔졸라스**: 6월 봉기 당시 ABC 그룹의 리더로 바리케이드에 남아 있던 마지막 시위대원 중 한 명입니다. 부상을 입은 그는 주방위군에 체포되어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의 젊은 나이와 잘생긴 외모 때문에 일부 방위군 대원들은 그를 동정하고 탈출을 도와주려하지만, 불행히도 그들의 시도는 실패하고 엔졸라스는 다른 시위대원들과 함께 처형됩니다.



## 주요 등장인물들의 관계

**장발장과 팡틴:** 장발장은 몽트뢰유 쉬르메르의 시장일 때 팡틴을 만납니다. 팡틴은 딸 코제트를 부양하기 위해 머리카락과 이빨 심지어는 몸을 팔아야만 했던 젊은 여성입니다. 장발장은 그녀의 사연에 연민을 느끼고, 테나르디에 가족에 진 빚을 갚아줍니다. 또한 코제트를 돌봐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장발장과 코제트:** 장발장은 코제트를 입양하여 친딸처럼 키웁니다. 그는 그녀에게 좋은 교육과 사랑스러운 집을 제공합니다. 코제트는 장발장을 아버지로 사랑하게 되고, 그가 자신에게 해준 모든 것에 감사하게 됩니다.

**코제트와 마리우스:** 코제트와 마리우스는 첫눈에 사랑에 빠지고, 그는 젊은 혁명가이기도 하지만 혁명적 신념보다 그녀와의 관계를 우선 하기로 결정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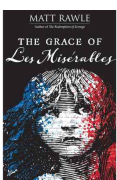
**자베르와 장발장:** 장발장을 정의의 심판대에 세우기로 결심한 경찰 경감입니다. 자베르 경감은 장발장이 범죄자라고 믿고 있으며, 그를 끈질기게 추적합니다. 장발장과 자베르의 관계는 복잡하지만 소설이 끝날 무렵 둘 다 구원을 받습니다.

**테나르디에 가족과 장발장:** 테나르디에 부부는 여관을 운영하는 탐욕스럽고 학대적인 부부입니다. 그들은 팡틴과 코제트를 학대하고 장발장을 강탈하려고 합니다. 소설 끝부분에선 마리우스 편지로 인해 자베르에게 붙잡힌 장발장의 탈출을 도와줍니다.

**마리우스와 테나르디에:** 나폴레옹 전투때 마리우스 아버지를 구해준 것을 아버지 유언장에서 마리우스가 알고서, 테나르디에를 모질게 내치지 못한다. 그의 결혼식에서 쫓아내면서도, 돈만 추구하는 그에게 돈 한 뭉치를 던져 줍니다.

**마리우스와 에포닌:** 코제트를 학대하는 테나르디에 부부의 딸입니다. 에포닌은 마리우스를 사랑하지만 그가 코제트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자신의 행복을 희생합니다. 에포닌은 비극적인 인물이며, 그녀의 죽음은 사랑의 대가를 상기시켜 줍니다.

**장발장과 마리우스:** 장발장은 마리우스와 코제트가 사랑에 실망하지만, 결국 부상당한 마리우스를 시위대에서 그들 결혼에 큰 재산을 줍니다. 장발장을 의심하던 마리우스는 테나르디에로부터, 부상에서 구해준 사람이 장발장임을 알고 화해합니다.



## 레 미제라블의 뒷담화

1. 이 소설은 실제 사건인 1832년 6월 봉기(반란)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6월 봉기는 1832년 파리에서 일어난 실제 사건입니다. 반란은 정부에 항의하던 학생과 노동자들이 주도했습니다. 반란은 군대에 의해 진압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2. 빅토르 위고는 이 소설을 집필하는 데 17년을 보냈습니다.
3. 이 소설은 원래 1862년에 18부작으로 출판되었으며, 그 분량은 1,500페이지가 넘습니다.
4. 저자인 빅토르 위고(Victor Hugo)가 실제로 생애 중에 집에서 작업할 때 자주 화장실로 들어가는 습관이 있었다 합니다. 그는 작업 중에 언제든지 화장실로 가서 글을 쓰거나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그는 "가장 오랜 시간 화장실에서 글을 쓴 작가"로 불리기도 합니다.
5. 디뉴 주교는 1802년부터 1821년까지 디뉴 주교를 지낸 프랑수아 비엔베누 드 미올리스라는 실존 인물을 모티브로 제작되었습니다. 미올리스는 친절과 동정심으로 유명했으며 빅토르 위고의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친 인물입니다.
6. 팡틴은 빅토르 위고의 여동생인 아델 위고라는 실존 인물을 모티브로 제작되었습니다. 아델은 연인에게 버림받은 후 강제로 공장에서 일해야만 했어요. 그녀는 병에 걸려 27살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7. 테나르디에 부부는 몽페르밀에서 여관을 운영했던 실제 부부인 무슈와 마담 테나르디에를 모티브로 삼았습니다. 테나르디에 부부는 탐욕과 잔인함으로 유명했고, 여관에 머무는 사람들을 착취했습니다.
8. 장발장의 캐릭터는 실제 범죄자에게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위고는 사립 탐정이 되기 전 범죄자였다가 프랑스 경찰 창설에 영감을 준 유진 프랑수아 비도크의 이야기를 알게 되었습니다. 비도크의 인생 이야기는 장 발장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9. 마리우스와 코제트의 사랑 이야기는 실제로 빅토르 위고의 친구인 아델레 폴라르드(Adele Foucher)와 그녀의 남편인 프레데리크 폴라르드(Frederic Foucher)의 이야기에서 영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들 또한 사랑에 빠지고, 결국 이혼 후에 다시 결합했습니다.

